

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5월 5주~6월 1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베트남 6월 경제 동향

- 베트남,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기관 지분 보유 규정 개정
 - 베트남 정부는 69/2025/ND-CP를 공포하여,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금융기관 지분 보유 규정을 개정
 - 상업은행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총 지분 보유 한도는 30%로 유지되나, 특정 조건 하에서 49%까지 확대 가능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총 지분 보유 한도는 50%로 설정
 -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경우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한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음
 -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한 경우, 6개월 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여 규정된 한도를 준수해야 함
- 베트남, 금(金) 시장 관리감독 강화 예정
 - 팜 민 쩌 베트남 총리는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해 시장안정을 위한 장단기적 조치에 마련에 나설 것을 재정부와 중앙은행(SBV)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지시
 - 올해 베트남 금값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달러대비 동화가치 하락이 맞물려 국제가와의 괴리 최대 10% 이상 기록
- 베트남 항공여객시장, 1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
 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에 따르면 '24년 베트남 항공 운송시장은 8위를 기록했으며, 여객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장률 121%를 기록하며 아태지역 상위 10대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

2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베트남 행정구역 통폐합 8월 15일부터 시행 예정
 - 정치국은 8월 15일 이전까지 성급 행정단위의 통폐합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으며, 기초단위 행정조직은 성급 행정기관이 업무 공백없이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
- 베트남-프랑스 정상회담 개최
 - 르엉 끄엥 베트남 국가주석은 하노이 주석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
 - 경제·국방·문화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, 양국 정부 및 기업은 항공기 구매와 핵 에너지 협력, 철도 및 에어버스 지구 관측 위성, 사노피 백신 등 주요 계약을 체결
- 호치민시, 건설허가제→등록제 전환 논의
 - 호치민시의 정책 싱크탱크인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7월부터 현행 건설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고,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한 건설 인허가 제도 개편안을 호치민시 당서기 및 인민위원장에 건의
 -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현행 건설법 규정상 1/500 세부계획이 수립된 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 허가가 면제될 수 있으며, 호치민시는 이를 활용해 건설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
 - 팜 민 쯔 총리는 지난주 지침을 통해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비용과 소요 시간의 최소 30% 이상 단축을 건설부에 지시한 바 있으며 1/500 규모 세부계획이 수립됐거나 계획도시 내 위치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할 것을 강조
- 건설부, 일부 건설 프로젝트 관련 행정 권한 이양 추진
 - 베트남 건설부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행정 권한을 하위 행정기관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 작성 중으로, 도로망 및 인프라 계획 승인 권한을 총리에서 건설부 장관으로 이전 및 재정착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 결정 권한을 총리에서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전하는 내용 포함

3 베트남 기타 동향

- 타코(THACO)그룹,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투자 타진
 - 타코그룹은 팜 민 켄 총리에 북남고속철도 사업계획서 제출
 - 타코그룹은 사업비의 20%를 자체 조달하고 국내외 신용기관에서 80%를 대출해 조달할 계획이며, 정부에 30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요청
 - 타코그룹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담 회사를 설립하고, 지분의 과반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,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분이나 운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
 - 또한 대중교통지향형개발(TOD)에 따른 도시개발을 위한 우선 토지 할당과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와 장비, 차량에 대한 수입세 면제를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정부에 제안
- 박닌성, USD 4.3억 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승인
 - 띠이박투자는 부동산대기업 썬그룹 계열사가 지분 49.9%를 가진 부동산 개발기업으로 VND 11조(USD 4.3억) 규모 주거·관광·생태·문화·리조트·엔터테인먼트 등을 갖춘 복합신도시를 개발할 계획
 - 북부 산업중심지 중 하나인 박닌성은 하노이의 북동부 관문도시이자 하노이·하이퐁·짱닌성 등 3대 경제 삼각지내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주택과 도시개발,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음
 -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5월 중순 박닌성에 VND 41조(약 USD 16억) 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, 4월에는 부동산개발업체 푸미흥 계열사의 VND 27조(USD 10.4억) 규모 도시개발사업 착공
- LS에코에너지, 베트남전력공사(EVN)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
 -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생산법인 LS-VINA는 베트남전력공사(EVN)의 송전망 구축사업에 약 454억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 예정
 - LS-VINA는 베트남에서 220kV급 초고압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현재 약 80%의 시장점유율 확보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(베트남) 호치민 메트로 1호선 룡탄신공항까지 연장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동나이성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USD 26억 (VND 67조)
- (사업내용) 연장 구간 38.5km
- (추진계획)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/ '26년 초 착공 목표

- (주요사항) 동나이성은 호치민 메트로 1호선을 룡탄국제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승인
 - 기존에는 수오이띠엔역에서 동나이성 호나이3까지 약 21km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나,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하화 및 룡탄 공항까지의 연장으로 계획이 확대

② (베트남) 속짱 항만 건설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속짱성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USD 24억 (VND 62조)
- (사업내용) 해상면적 148,486ha, 육지 면적 1,331ha 총 6개의 항구 등으로 구성
- (추진계획) 미정

- (주요사항) 속짱 항만은 메콩델타 지역의 주요 관문 항만으로 개발되며, 최대 160,000 DWT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
 - '30년까지 연간 3,070만~4,120만 톤의 화물 처리 예정